



동신대, 교육부가 인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



최일 동신대학교 총장

'취업 잘 시키는 대학'

동신대는 2009~2016년 중 6년을 광주·전남 일반대학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최악의 지표를 보이기 시작한 2015년 후에도 취업 강자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졸업생 취업률은 2015년 71.4%, 2016년 67.6%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2015년 67.5%·2016년 64.3%) 보다 높았다. 2017년 취업률은 70.9%였다. 취업자가 약 1년(11개월) 후에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유지취업률(1차 기준)도 2014년 83.3%, 2015년 89.1%, 2016년 90.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유지취업률이 높은 대학은 취업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그레이드 시즌2' 광주·전남혁신도시 중심대학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 16개 에너지 공기업 본사

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에너지 밸리에는 기업 300여 개가 입주를 마쳤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 앞으로 5년간 3조9천억원을 투입해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육성할 방침이다. 더욱이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2018년 18%, 2022년까지 30% 이상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로 하면서 혁신도시는 동신대가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와 장을 열어주고 있다. 동신대는 이 가운데 5% 이상 취업을 목표로 혁신도시 취업 특별반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 16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전과 한전KDN에 학생들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입학 전부터 취업까지 빈틈없는 프로그램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빈틈없는 교육·취업 프로그램이다.

동신대 예비신입생은 입학 전부터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해 전공과 관련한 기초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입학과 동시에 동기유발캠프를 운영해 신입생에게 비전과 목표를 심어주고, 입학 후에는 취업, 해외연수, 해외 봉사 등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수들은 학생들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함께하며 진로 설계와 대학 생활의 정착을 도와준다. 졸업동시·교학상장·동고동락 프로그램, 공동 관심 분야를 함께 공부하는 어깨동무(스터디그룹)와 길라잡이(튜터링 그룹), 교수와 학생 간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창의학습공동체, 해외 어학연수, 해외 봉사 등 140여 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 영역에서 놓칠 수 있는 빈틈을 꼼꼼히 채워준다.

대학 기본역량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동신대는 교육부가 공식 인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이다. 에이스(ACE) 사업, 프라임(PRIME) 사업에 이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며 강한 지방대학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신대는 이번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2019년부터 3년간 정원 감축 없이 정부로부터 대학 재량'셋' 쓸 수 있는 재정을 지원받는다.

모든 국책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대출 등 정부의 각종 장학제도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등록금은 내리고 장학금은 늘리고

동신대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10년 중 9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반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매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2014년 50.24%, 2015년 53.36%, 2016년 55.46%를 기록했다. 사실상 반값 등록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학금 제도는 일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학생들의 경력 개발, 능력 개발과 연계해 학생들이 스펙을 쌓으면 마일리지 주는 마일리지 장학금이 대표적이다.

마일리지는 각 영역에서 15만 점씩, 최대 75만 점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1점당 2원씩으로, 장학금은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597명에게 2억856만원의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한 이후 2017년까지 총 5천576명에게 19억562만원을 지급했다. ♣

